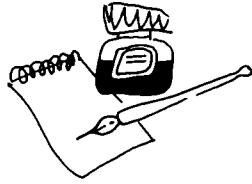


# 편집 후기



지난해 4월 문을 연 방재시험소가 어느덧 개소 한 뜻을 맛았다.

주변의 복잡한 여건속에서 아직은 불보직과 다름없는 전문방재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일은 실제로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우기 국내에선 처음 설립된 방재시험소 이고 보니 당연히 우리 모두가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겨우 첫발을 떼어놓은 방재시험소에 거는 기대는 짧은 기간내에 어떤 뚜렷하고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실적의 제시가 아니라 고도로 정밀하고 꾸준한 시험실시를 토대로 한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명확한 객관적 기준의 제시, 가장 새롭고 풍부한 방재 정보의 수집과 합리성있는 운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의 확립 이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집중적인 투자와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된다.

새 봄을 맞아 「방재와 보험」을 위해 귀한 글을 주신 집필자와 끊임없이 성원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께서도 더욱 활기찬 나날을 맞으시기 바란다.

「방재와 보험」지 86거울호에 애독자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28일자로 마감한 설문조사에 많은 독자여러분들이 참여하여 주셨는데 7개항의 설문서중 「방재와 보험」지의 편집내용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2%가 내용이 다양하고 재미있으며 관련업무에 적지않은 도움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부러 99%가 「방재와 보험」내용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애독자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좀 더 알찬 내용과 새로운 편집방법으로 「방재와 보험」을 만들어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다짐해본다.

그동안 「방재와 보험」지 편집을 담당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다 지난 2월 부산지부 점검과장으로 승격해 간 崔泰源 과장과 옥교를 주신 집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사를 드리며 새봄을 맞아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고내용

-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수필·수기·공트 등 문예작품

### □ 보낼곳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35-4(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 거제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 防災와保險

(통권 제33호)

1987/봄호  
계간/비매품

등록 / 마-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7년 4월 1일  
인쇄 / 1987년 3월 30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동광문화사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